

삼성전자, 3/4분기 영업이익 4조원

반도체 · LCD 부품가격 회복에 ... TV · 휴대폰 시장점유율 증가까지

삼성전자의 3/4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.

10월5일 증권업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2009년 3/4분기에 연결기준으로 4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.

삼성전자는 영업실적을 둘러싼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10월6일 오전 전망치(가이드)를 내놓을 예정으로 분기별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서면 2004년 1/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.

2004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휴대폰, TV 생산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사기준과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.

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/4분기 영업이익을 3조6000억원에서 4조원 선으로, 매출은 2/4분기의 32조5100억원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반도체와 LCD(Liquid Crystal Display) 등 부품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TV와 휴대폰 등 주력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06>